

『漢韓大辭典』의 편찬과정과 향후 계획*

윤 승 준**

국문초록

본고는 30여 년에 걸친 『漢韓大辭典』 편찬 과정에서 축적한 사전 편찬에 대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한편, 『《한한대사전》 편찬 백서』(가칭) 발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정리하기 위하여 기필되었다. 특히 이 글에서는 『한한대사전』의 편찬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동양학연구소에서는 1977년 漢韓辭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張忠植 전 총장의 요청에 따라 편찬계획안을 수립하고 「한한대사전편찬실」을 신설하였다. 편찬실에서는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를 담당할 편찬원을 선발하여 사전 편찬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어휘 채록과 주석 작업에 착수하였다. 사전 편찬 과정에서 본래 ‘전문 인력 20명에 14억 원의 예산으로 15년에 걸쳐 편찬한다.’는 계획안은 2차례 수정을 거쳤고, 마침내 ‘한한대사전 편찬 특별대책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사전 발간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08년 10월 28일 『漢韓大辭典』 16책의 완간을 볼 수 있었다. 이보다 앞선 1996년 11월, 동양학연구소는 우리나라 고유의 한자와 한자어를 수록한 『韓國漢字語辭典』 4책을 완간한 바 있다. 동양학연구소에서는 30여 년에 걸친 편찬 기간 동안 月例研究討議會, 『東洋學簡報』의 발간, 동양학연구소 도서관 운영, 편찬원의 해외 시찰, 전산 조판 시스템의 도입과 한자 폰트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漢韓大辭典』 편찬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여 왔다. 아울러 ‘통합디지털 한한대사전’ 편찬 작업을 진행 중인 동양학연구원에서는 향후 ‘『한한대사전』의 웹 서비스를 통한 사회 기여’, ‘학습용 한자사전 및 전문 갈래 사전의 편찬’, ‘사전학의 세계적 메카를 향한 학술 연구’,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고전번역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사업’을 계획 추진 중에 있다.

[주제어] 한한대사전, 한국한자어사전, 동양학연구소, 한한대사전편찬실, 편찬과정, 규정, 기구, 개편, 편찬지침, 편찬원, 어휘 채록, 주석, 동양학간보, 동양학연구소 자료실, 통합, 디지털, 웹 서비스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앞으로의 계획 |
| II. 『漢韓大辭典』의 편찬과정 | |

* 이 글은 제8회 한국학 사전 및 공구서 편찬 모임(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2.2.18.)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단국대학교 교수 / yoosj@dankook.ac.kr

I. 머리말

교수신문사는 창간 20주년을 기념하며 마련한 특별 기획 “대학의 유산, 한국의 미래”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에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現 東洋學研究院)의 『漢韓大辭典』을 선정하였다.¹⁾ 30여 년에 걸친 대장정 끝에 『한한대사전』(16책) 완간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공적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2010년 12월말부터 진행된 이번 기획을 통해 교수신문사는 우리나라 대학이 보유한 유형·무형의 자산 가운데 한국 사회의 ‘문화 국격’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 유산으로 13편을 선정하였는데, 그 가운데 『한한대사전』을 최고 영예에 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동양학연구원에서는 현재 『韓國漢字語辭典』 4책과 『한한대사전』 16책을 통합하고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통합디지털 漢韓大辭典’ 편찬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사전 편찬은 본래 오랜 시간과 많은 공력을 요하는 지난한 작업이기 때문에 쉽사리 구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설령 구상을 하였다 하더라도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더구나 『한한대사전』과 같이 방대한 사전의 편찬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사전 편찬 작업은 그 결과물도 결과물이지만 편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경험과 인력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자산이 된다. 따라서 작업일지와 기구 및 조직, 추진 체계, 작업 지침, 인적 구성, 자료 목록, 예산 등 사전 편찬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문제를 백서 형태로 발간하는 작업은 앞으로 거듭 이루어질 사전 편찬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된다.²⁾

이 글은 30여 년에 걸친 『한한대사전』 편찬 과정에서 축적한 사전 편찬에 대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한편, 『《한한대사전》 편찬 백서』(가칭) 발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정리하기 위하여 기필되었다. 『漢韓大辭典』의 편찬 목적이나 특징, 채록 범위, 주석 요령, 배열 방식, 사전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된 글이 있기 때문에,³⁾ 여기에서는 『漢韓大辭典』의 편찬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동양학연구원 편찬실이 계획하고 있는 향후 사업들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II. 『漢韓大辭典』의 편찬과정

1. 東洋學研究所와 「漢韓大辭典編纂室」의 發足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는 한국의 역사 문화를 기축으로 한, 중국·일본의 역사 문화를 연구할 목적으로

1) 「〈교수신문〉 특별기획 ‘대학의 유산, 한국의 미래’ 사상식」, 『교수신문』 2012년 5월 4일자.

2) 그런 점에서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백서』(국립국어연구원, (주)계문사, 2000)나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 백서』(겨레말큰사전 남측편찬위원회, 2005), 『〈고려대 한국어대사전〉과 사전학』(도원영·박주원, 지식과교양, 2011) 등은 눈여겨 보아야 할 성과가 아닐 수 없다.

3) 漢韓大辭典編纂室, 「漢韓大辭典의 집필 및 편찬방향」, 『東洋學簡報』 8,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88.; 「일러두기」, 『韓國漢字語辭典』 1,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92.; 「일러두기」, 『漢韓大辭典』 1,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99.; 鄭載喆, 「『漢韓大辭典』의 편찬 방향과 사전사적 의미」, 『東洋學』 46,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9 참조.

1970년 9월 28일에 발족하였다. 초대 소장으로 李承旭 교수를 모셨으며, 간사에 黃潤江 교수, 評議員에 金錫夏·黃潤江·車文燮·鄭永鎬·黃明水 교수를 선임하였다. 발족 즉시 제1회 評議員會議을 개최하여 ‘東洋學研究所 規約’을 채택하고, ① 한국문화를 기축으로 하는 동양문화의 연구, ② 연구논문집 및 연구자료의 간행, ③ 연구발표회 공개강좌 및 학술토론회의 개최, ④ 所員의 해외교환 및 해외학자의 초빙, ⑤ 연구자료의 수집과 정리, ⑥ 기타 본 연구소 설립 목적에 수반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⁴⁾

1971년 1월 1일 一石 李熙昇 박사를 제2대 소장으로 추대하면서 연구소의 사업은 본 궤도에 올랐다. 東洋史를 전공하였던 張忠植 단국대학교 전 총장은 『二十五史』를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漢韓辭典이 없어 일본의 『大漢和辭典』에 의존해야 했는데, 그는 이 사전을 펼쳐 들 때마다 우리말로 된 漢韓辭典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고 한다.⁵⁾ 그리고 마침내 우리말로 된 漢韓辭典 편찬이라는 뜻을 이루기 위해 三顧草廬 끝에 一石 李熙昇 박사를 동양학연구소장으로 모셔왔다. 李熙昇 박사는 이 방대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팔십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에 이러한 중책을 맡을 수 없다고 하면서 사양하였다. 그러나 張忠植 전 총장의 패기와 간곡한 청원에 못 이겨 소장직을 10년만 맡겠다는 약속 아래 동양학연구소장으로 취임하였다. 李熙昇 박사는 소장직을 수락하면서 “내가 국어학자로 공부를 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한자나 우리나라 문헌에서만 고유한 뜻으로 쓰인 한자, 한자단어가 자주 보입니다. 그런데 이를 마땅히 해석할 사전이 따로 없어 많은 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우선 한자사전을 편찬하면서 이를 따로 먼저 펴내 달라.”라고 약속할 것을 요구하였고,⁶⁾ 이로써 『韓國漢字語辭典』과 『漢韓大辭典』 편찬의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게 되었다.

1977년 6월 張忠植 전 총장은 『漢韓大辭典』의 편찬이 시대적 요청일 뿐 아니라⁷⁾ 동양학연구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간과할 수 없는 요긴한 사업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의 추진을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요청하였다.⁸⁾ 연구소에서는 이 요청에 따라 評議員會를 소집하여 논의한 끝에 ‘전문 인력 20명에 14억 원의 예산으로 15년에 걸쳐 편찬한다.’는 계획안을 세워서 보고하였다. 동년 8월 30일 張忠植 전 총장은 이 계획안을 승인하면서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⁹⁾

4) 그러나 1980년 6월 20일 추진 사업을 확대하여 ① 한국문화를 기축으로 하는 동양문화의 연구, ② 연구논문집 및 연구자료의 간행, ③ 한한대사전의 편찬 및 기타 사전의 편찬, ④ 연구발표회 공개강좌 및 학술토론회 개최, ⑤ 소원의 해외교환 및 해외학자의 초청, ⑥ 부속자료실의 운영 및 연구자료의 수집과 정리, ⑦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수반하는 사업 등으로 결정하였다. 『단국대학교 30년사』, 단국대학교출판부, 1977, 575쪽.; 『東洋學研究所 略史』, 『東洋學』 20,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90, 487~488쪽.

5) 장충식, 『中齋張忠植回顧錄』 시대를 넘어 미래를 열다, NOSVOS, 2011, 616~625쪽 참조.

6) 張忠植, 「『漢韓大辭典』 완간을 보는 소회」, 『漢韓大辭典 刊行記』,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8, 28쪽.

7) 당시에는 이미 日本의 『大漢和辭典』(1955)이 나와 있었을 뿐 아니라 臺灣에서도 『中文大辭典』(1973)이 간행되었고, 中國에서는 『漢語大詞典』 편찬을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漢韓大辭典』의 편찬은 민족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위해 필수적으로 완수해야 하는 宿願과도 같은 사업이었을 뿐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과 체면을 세우는 길이기도 하였다.

8) 『漢韓大辭典』 편찬 사업은 본래 범대학 차원의 편찬기구를 만들어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대학의 재정 규모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 더구나 당시 단국대학교는 한남동 교지의 협소함을 감안해 강남구 내곡동에 24만 평의 교지를 새로 구입하였던 터라 『漢韓大辭典』 편찬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선뜻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대학 재단에서 사전편찬 사업 지원에 난색을 표함에 따라 『漢韓大辭典』의 편찬은 대학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마침내 동양학연구소의 부속사업으로 착수하게 되었던 것이다. 張忠植(2008), 앞의 글, 24~25쪽.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동양학연구소에서는 1977년 9월 7일 제32차 評議員會를 열어 연구소 산하에 「漢韓大辭典編纂室」을 신설하고 개교 30주년 기념일인 11월 3일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가기로 의결하였다. 그리고 동년 10월 8일 전 연세대 교수였던 한학자 權五惇을 상임편찬위원으로 모시고, 인천교육대학 교수인 국어학자 李江魯를 편찬실장으로 초빙하여 준비 작업에 착수하게 하는 한편, 연구원 姜在哲로 하여금 기획 당시의 업무를 보좌하게 하였다. 이들은 먼저 「漢韓大辭典編纂室 規程」 초안을 작성하여 평의원회에 회부하였다. 이 규정은 1977년 12월 1일, 제33차 評議員會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는데, 여기에는 편찬실의 인적 구성과 조직, 재정에 대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¹⁰⁾ 특히 그 중에서도 제7조 “편찬실의 경비는 단국대학교에서 지급하고 보조금과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그 1항에 “편찬실의 경비는 연구소의 경비와 구분 관리한다.”고 함으로써 사전 편찬에 대한 학교 당국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듬해인 1978년 2월 23일 제34차 評議員會를 열어 자문기관으로서 「漢韓大辭典編纂委員會」를 구성할 편찬위원의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 편찬위원을 위촉하였다. 위촉된 18명의 편찬위원은 아래와 같다.¹¹⁾

金東旭(국문학, 연세대), 金東華(불교학, 동국대), 金錫夏(국문학, 단국대), 金春東(한문학 전 고려대), 南廣祐(국어학, 인하대), 申奭鎬(한국사, 학술원), 李家源(한문학, 연세대), 李丙薰(한국사, 학술원), 李瑄根(한국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李崇寧(국어학, 한양대), 任昌淳(한문학, 태동고전연구소), 鄭在覺(동양사, 동국대), 趙國元(한학, 민족문화추진회), 曹圭喆(한학, 민족문화추진회), 車文燮(한국사, 단국대), 崔永禧(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洪贊裕(한학, 민족문화추진회), 黃溟江(국문학, 단국대)

한편 『漢韓大辭典』 편찬 실무를 담당할 編纂員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였다. 1978년 4월 9일 공개채용 시험에 73명이 응시하였는데, 그 가운데에서 金永萬, 崔雄, 許鎬九, 徐智源, 禹燦奎 5명을 편찬원(보)으로 선발하여 一石紀念館 902호와 903호에서 본격적인 편찬 작업에 착수하게 하였다. 이들은 우선 사업 개요에 따른 종합편찬계획과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한자 및 한국한자어의 채록을 위하여 열람할 문헌목록을 작성하고 채록 작업에 착수하였다. 5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수립된 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1978년 10월 23일 제1차 漢韓大辭典編纂諮問委員會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였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채록 대상으로 선정 제시한 문헌목록이 계획한 사업기간에 비하여 과다할 뿐 아니라 누락된 것도 있으므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였고, 범례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작성하라고 하지 말고 일의 진행에 따라 보완해가도록 조언하였으며, 정부나 사회 각계의 지원을 요청할 것을 주문하였다.¹²⁾

9) 黃溟江, 「東洋學研究所의 回顧와 展望」, 『東洋學』 30,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0, x~xi쪽.

10) 「漢韓大辭典編纂室 規程」, 『단국대학교 40년사』, 단국대학교출판부, 1987, 621쪽 참조.

11) 이상의 내용은 『단국대학교 40년사』를 기초로 한 것이다. 그러나 『東洋學』 8집(1978, 243~244쪽)의 「彙報」에는 여기 제시된 편찬위원 18명 가운데 金東華, 李家源, 李瑄根 등 3명이 빠져 있고, 李學洙(불교, 동국대)가 추가로 거명되어 있다. 위촉과정에서 다시 조정 인선된 것으로 보인다. 1980년 8월에는 朴魯春(국문학, 경희대), 金鍾五, 李勳鍾(국문학, 건국대), 申源雨(덕성여대), 李寬逸(국문학, 충신대), 鄭在道(소년조선 주간), 金昌武(소년조선 주간), 崔信浩(국문학, 성심여대), 趙鏞一(철학, 단국대), 李慶善(중국문학, 한양대) 등 10명의 편찬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였다.

이듬해인 1979년 4월 8일에는 두 번째 편찬원 공채시험을 통해 편찬원(보) 李相敦, 鄭堯一, 柳在城, 金衡浩, 李忠九 등 5명을 채용하여 채록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또한 1980년 2월에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고전국역위원으로 있던 盧寧壽를 편찬원으로 맞아들였고, 같은 해 7월에는 3번째 편찬원 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하여 李斗熙, 朴龍圭, 李賢植, 金綾夏, 金信浩, 金在烈, 金侖禹, 成百曉 등을 편찬원(보)으로 채용하였다. 공개 채용한 편찬원들은 『삼국사기』·『삼국유사』·『고려사』·『조선왕조실록』 등 120여 종에 이르는 문헌에서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하게 쓰이는 한자와 어휘를 채록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1982년 9월에는 결원에 따른 충원을 위해 朴成勳, 洪順錫을 편찬원보로 채용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사전 편찬을 위한 기본 조직과 인적 구성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었다.

2. 『漢韓大辭典』 編纂 略史

(1) 『한한대사전』 편찬 계획의 수정

「한한대사전편찬실」이 발족하고 종합편찬계획과 연차별 사업계획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전문 인력 20명에 14억 원의 예산으로 15년에 걸쳐 편찬한다.’는 본래의 계획안은 일부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79년 9월 25일 편집회의를 통해 제1차로 수정된 편찬계획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사업개요

가. 편찬방침 : 우선 『한국한자어사전』을 편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한대사전』을 편찬한다.

1. 『한국한자어사전』

- 내용 :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쓰이는 한자·한자어를 수록한다.
- 규모 : 4·6배판, 4段縱組 4책(약 4,000면)

2. 『한한대사전』

- 내용 : 『한국한자어사전』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외 문헌 및 辭書類에 실린 한자·한자어를 재정리 수록한다.
- 규모 : 4·6배판, 4段縱組 17책(약 19,000면)

나. 편찬기간 : 1978년 3월 1일~1995년 2월 28일

1. 『한국한자어사전』 : 1978년 3월 1일~1990년 2월 28일(12년간)
2. 『한한대사전』 : 1980년 3월 1일~1995년 2월 28일(15년간)

※ 작업진행표

연도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한국한자어사전(어휘채집)									주석· 편집		출간		종합발간				
한한대사전(원고·교열·수정·정리)																	

12) 『集報』 9, 『東洋學』 9,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79, 308~309쪽.

다. 편찬인원 : 44명

- 편찬위원 :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자문위원 17명
- 편찬직원 : 편찬원 22명, 사무원 2명

라. 예 산 : 약 28억원(1979년 3월 물가 기준)¹³⁾

위와 같은 사업 계획에 따라 공개 채용한 편찬원들로 하여금 韓國漢字語를 채록을 담당하게 하는 한편, 國學에 조예가 깊은 학자들을 위촉하여 『大漢和辭典』과 『中文大辭典』을 저본으로 한 어휘 주석에 착수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인선 작업을 서둘렀다. 그에 따라 朴魯春 등 외부 학자 10명을 위촉하여 『大漢和辭典』 권1과 『中文大辭典』 권1을 저본으로 한 어휘 주석을 의뢰하였으나, 위촉 원고의 체제나 내용이 사전 주석에서 요구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많았다. 이에 원고의 분산적 집필을 지양하기 위하여 1981년 4월 1일 金東吉을 객원편찬원으로 위촉하고 어휘 주석에 전념케 하였다.

그 사이 사전 편찬에 참여하여 온 편찬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전국 각 대학에 전임교수로 발령을 받아 이직하기도 하였고, 정년을 맞아 퇴임하기도 있었으며, 또 때로는 별세하는 경우도 있어 편찬실에는 그때그때 충원이 이루어져야 했다. 그에 따라 李在琇(1982), 金東吉(1984), 崔明華(1986), 曹命根(1987), 李聖揆(1987), 卞鍾鉉(1987), 朱昇澤(1989) 등이 계속해서 편찬실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는 학교의 재정난으로 인하여 한동안 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당초 1990년부터 발간하려고 하였던 『한한대사전』은 『한국한자어사전』의 출간이 늦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순연되었다. 유능한 편찬원의 확보가 어렵고, 한국한자 및 한자어에 대한 주석이 매우 힘든 일인 데다가 예산상의 어려움까지 겹쳐 『漢韓大辭典』 편찬 계획은 다시 수정되어야 했다. 1994년 10월 두 번째로 수정된 편찬 계획의 골자는 1995년까지 『한국한자어사전』 전4책을 완간하고, 2004년까지 『한한대사전』 전17책을 완간한다는 것이었다.

그 뒤 연구소에서는 1995년 6월 편찬원으로 金東鉉 한 사람을 충원하였고, 1996년 5월에는 연구원으로 있던 鄭錫龍, 金世奉, 李在鈴이 편찬원(보)으로 옮겨왔다. 그리고 1999년 10월에 趙文珠, 鄭東和, 金愚政, 2000년 4월에 鄭都尙, 朴燦圭, 池明媛, 尹賢姬, 2001년 9월에 柳希在, 2003년 6월에 丁泰允, 金芝英, 權奇元, 許靜賢, 趙東永을 각각 충원하였다.¹⁴⁾

그러나 2004년까지 『한한대사전』 전17책을 완간하기로 하였던 2차 수정 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학교 당국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한한대사전』은 2005년 6월 당시 계획했던 전체 17책 가운데 절반 정도인 8권밖에 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漢韓大辭典』 편찬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편찬사업을 직접 관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학교 당국과 편찬실은 『한한

13) 『단국대학교 40년사』, 단국대학교출판부, 1987, 622-623쪽.

14) 1999년 이후 채용된 편찬원들은 재단 부도사태로 인해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던 학교의 재정형편상 대부분 계약직 신분으로 충원할 수밖에 없었다. 『漢韓大辭典』이 완간되기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끈기있게 사업을 완수해낸 이들의 헌신적 노력을 간과할 수 없다. 한편 교육부 지원금을 활용하여 1995년 7월과 8월에는 각각 7명과 10명, 총 17명의 객원편찬원을 선발하여 『漢韓大辭典』 원고 작성에 참여케 하기도 하였다.

대사전』 편찬 사업을 2008년까지 조기 완료한다는 데 합의하기에 이르렀다.¹⁵⁾ 편찬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편찬실에서는 전체 17책으로 간행하기로 했던 것을 16책으로 조정하고, 편찬원 朴相水, 林香燮(2006.3), 盧相澈, 鄭亨道(2006.6)를 충원하였다. 편찬원들은 정규 근무시간이 끝난 뒤에도 야근을 하고, 주말 시간까지 반납하면서 특근에 특근을 거듭하여 2008년 10월 28일 『한한대사전』 16책은 마침내 완간될 수 있었다.

(2) 한국 고유한자와 어휘의 채록 및 주석

연구소에서는 1차로 『韓國漢字語辭典』 4책을 먼저 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漢韓大辭典』 17책을 2차로 간행하기로 계획하였던 바, 편찬 작업 역시 한국에서 고유하게 사용되어 온 한자와 한자어를 채록하고 그에 대하여 주석하는 일과,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 등 한자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한자와 한자어에 대하여 주석하는 일로 대별하여 진행해 왔다.

사업계획 초기 채록 대상으로 선정한 120여 종의 문헌을 일일이 독파하면서 1字, 1語彙씩 캐 모은 것이 5천여 자와 10만여 어휘에 이르게 되자, 『한국한자어사전』에 수록할 우리나라의 고유한자와 한자어에 대한 채록 작업은 1985년 2월에 일단락을 지을 수 있었다. 이후부터는 주로 어휘 주석 작업에 집중하였다.¹⁶⁾ 그러나 주석 역시 채록 이상으로 어려운 작업이었다. 본디 사전의 편찬이란 각 전문 분야별로 그 방면의 석학들이 연구해 놓은 업적을 사전의 체계에 맞춰 집대성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한자어사전』의 편찬은 그런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편찬원 스스로 글을 독해하고, 개념을 간명하게 표현해야 했다. 사전 편찬의 본 업무와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 연구까지 겸해야 했던 것이다.¹⁷⁾

이처럼 『한국한자어사전』 편찬을 위한 채록과 주석 작업은 그 의의만큼이나 난관도 적지 않았다. 車柱環 박사는 『한국한자어사전』의 교열 작업에 관계하면서 그 소회를 짚막하게 밝힌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그동안의 작업으로 어휘 채록은 대략 10만을 헤아릴 정도에까지 이르렀으나 거기에는 취사 선택이 가해져야 하고 추가 채록할 어휘도 적지 아니 남아 있으며, 그 중에는 처음으로 語音과 語義와 說明을 써내야 하는 어휘가 의외로 많아서 한정된 사업 기간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정력을 쏟지 않을 수 없고, 조사 연구에 시간과 정력을 쏟더라도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였다. 나아가 훗날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誤字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도 하였다.¹⁸⁾ 실상 이와 같은 문제는 『한국한자어사전』이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한계이기도 하다. 완간 후에도 거듭 지적되는 문제인만큼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다.¹⁹⁾

15) 『단국대학교 60년사(상)』, 단국대학교출판부, 2007, 209쪽 참조.

16) 이와 같은 작업 진척 상황은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편찬원의 대부분은 한국한자어 발췌작업에 종사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을 위시한 기본문헌 약 130종 총 7,000권을 대상으로 한국에서만 쓰이는 한자어를 가려내어 카드화하는 작업인바 올해로써 7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편찬사업의 전체 계획과 집행은 이강로 실장이 주관해 내려오고 있다. 초창기에 불가피한 시행착오도 더러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찬사업은 제 궤도 위에서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7년이 차는 올해로써 한국식 한자어 발췌는 일단락을 짓고(발췌카드 총 12,000장 정도), 대부분의 인력이 주석으로 전환하고 있다.” 黃涇江, 「東洋學研究所 14년을 회고하며」, 『東洋學簡報』 1,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84, 6쪽.

17) 金東旭 外, 「漢韓大辭典 編纂 中間報告」, 『東洋學簡報』 6,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87, 45쪽.

18) 車柱環, 「韓國漢字語辭典의 編纂과 校閱」, 『東洋學簡報』 4,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86, 22~26쪽.

19) 曹命根, 「校正有感」, 『東洋學簡報』 11,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1, 25~26쪽.; 洪윤표, 「『漢韓大辭典』 補完 方法의 提

(3) 「한한대사전편찬실」의 기구 개편과 사전의 완간

한편 「한한대사전편찬실」은 그동안 여러 차례 기구 개편을 거쳤는데, 이는 편찬 사업이 진척되면서 맞닥트리게 되는 불가피한 계획의 변경과 상황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한한대사전』 1권의 편찬 작업을 추진하던 중 『한국한자어사전』을 먼저 발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986년 9월부터 편찬실을 ‘漢韓大辭典部’(부장: 김동길)와 ‘韓國漢字語辭典部’(부장: 노영수)로 나누어 『한국한자어사전』과 『한한대사전』 편찬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게 되었다. 이듬해인 1987년 7월 1일 초대 편찬실장을 맡았던 李江魯가 사임하면서 金東吉이 제2대 편찬실장, 盧寧壽가 부실장을 각각 맡게 되었고, 李相敦이 한한대사전부장, 許鎬九가 한국한자어사전 부장을 각각 맡게 되었다. 1991년 6월에는 제2대 편찬실장 金東吉의 정년퇴임에 따라 盧寧壽를 제3대 편찬실장으로 임명하였으며, 실장 아래 ‘한한대사전부’·‘교정부’·‘전산부’ 등 3개 부를 두고 李相敦·許鎬九·徐智源을 각 부의 수석으로 보임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한국한자어사전』의 출간을 목전에 두고 있던 상황과 아울러 컴퓨터를 활용한 새로운 조판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1996년 『한국한자어사전』이 완간되고 난 후, 또 한 차례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그 때까지 한한대사전편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집필 원고에 대한 교열을 전담해 오던 車柱環 박사가 1997년 2월 4일자로 제7대 소장에 취임하였고, 행정간사이자 한적과장으로 있던 權永大가 盧寧壽의 뒤를 이어 제4대 편찬실장이 되었다.²⁰⁾ 그리고 1998년 1월에는 『한한대사전』 편찬 사업 초기부터 관여하였던 金相培 교수가 車柱環 박사의 뒤를 이어 제8대 소장에 취임하면서 사전의 완간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였으며, 2000년 8월에는 편찬실장 權永大의 정년퇴임으로 제5대 편찬실장에 金榮洙가 취임하여 2004년 6월까지 편찬실을 맡았다. 2005년부터는 ‘漢韓大辭典 편찬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편찬사업을 직접 관리하게 되었다. 편찬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許鎬九를 수석팀장, 그리고 朴燦圭와 鄭東和를 교정팀장, 교열팀장으로 하여 편찬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한한대사전』 편찬의 대장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한대사전』의 완간은 본래의 계획보다 무려 13년이나 더 오랜 시간이 걸려 이루어졌다.²¹⁾ 『한국한자어사전』만 해도 첫 권의 출간이 당초 1988년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2차에 걸친 편찬 계획의 수정을 거치면서 1992년에 가서야 비로소 출간되었으며, 전질의 완간은 6년이나 지연된 1996년에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으나, 다음의 몇 가지 요인은 그 중심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보다 많은 문자와 어휘를 수록하려는 사전 작업상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둘째, 당초 계획했던 상근 편찬원에 비하여 실제 인원은 항상 모자랐다. 셋째, 전산 조판 시스템의

案-『韓國漢字語辭典』을 포함하여 -, 『동아시아 고유한자의 국제표준화와 사전편찬』(제3회 동양학연구원 사전학 학술회의 프로시딩),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2, 1~38쪽.; 황선엽, 「이두문 자료 어휘의 사전 편찬에 대하여- 신라·고려를 중심으로 -, 『동아시아 고유한자의 국제표준화와 사전편찬』,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2, 117~131쪽 참조.

20) 『단국대학교 50년사(상)』, 단국대학교출판부, 1997, 597~598쪽 참조.

21) 일개 사립대학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漢韓大辭典』 편찬 사업을 바라보는 학교 관계자들의 시선은 결코 고울 수 없었다. 더구나 재단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면서 『漢韓大辭典』 편찬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였다. 1991년 「한한대사전편찬실」의 편찬사업 진전 상황에 대한 행정실사가 있었고, 2005년에는 사업에 대한 종합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漢韓大辭典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漢韓大辭典』 편찬 사업을 직접 관리하기에 이르렀다.

설치가 늦어졌고, 넷째 교열과 교정에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²²⁾ 또한 『한국한자어사전』 발간 후 중국에서 새롭게 나온 『漢語大字典』과 『漢語大詞典』을 참고하여 일일이 대조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大漢和辭典』과 『中文大辭典』을 저본으로 출발하였던 『한한대사전』은 『漢語大字典』과 『漢語大詞典』에 새롭게 수록된 문자와 어휘를 포괄하여야 했고, 그 과정에서 『한한대사전』의 체제도 새롭게 바로잡아야 했다. 이렇게 하여 편찬사업이 시작된 지 31만인 2008년 10월 28일, 동원 인원 22만 명, 예산 350억 원 이상을 투입한 끝에 마침내 『한국한자어사전』 4책과 『한한대사전』 16책을 완간할 수 있었다. 1996년에 완간된 『한국한자어사전』 4책은 4·6배판 중 4,410면으로, 표제한자 5,222자와 한국한자어휘 89,439개를 수록하고 있으며, 2008년에 완간된 『한한대사전』 16책은 4·6배판 중 20,786면으로, 표제한자 54,964자, 한자어휘 420,269개를 수록하고 있다.

3. 『漢韓大辭典』 편찬을 위한 제반 활동

「한한대사전편찬실」에서는 『한한대사전』 편찬을 위하여 각종 전적이나 원고와 씨름해 왔을 뿐 아니라 보다 나은 사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여기에서는 그 가운데 月例研究討議會와 『東洋學簡報』 발간, 동양학연구소 도서관의 운영, 편찬원의 해외 시찰, 전산 조판 시스템의 도입과 한자 폰트 개발 등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1) 月例研究討議會

동양학연구소에는 1972년부터 연구원을 중심으로 매월 1회 研究討議會를 가져왔다. 연구원들의 개인적 연구나 『二十五史』 발췌 정리 작업 및 『漢韓大辭典』 편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주제로 하여 발표와 토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연구소를 방문하는 저명한 외국학자와 좌담을 하거나 강연을 듣는 기회로 이용되기도 하였다.²³⁾ 편찬실에서는 동양학연구소의 月例研究討議會를 활용하여 『한한대사전』 편찬과 관련한 주요 문제들을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한한대사전』의 체제와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정리하는 기회로 삼았다. 특히 月例研究討議會는 사전 편찬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함께 검토하는 자리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李江魯, “文法的 모호성과 그 辭典處理의 問題點”(1981.11.24. 제63회)

李忠九, “韓國漢字에 대한 文字學的 考察”(1982.3.23. 제66회)

李江魯, “借字語의 辭典的 處理에 대하여”(1982.4.26. 제67회)

金永萬, “漢韓辭典에서의 漢字音”(1982.11.29. 제68회)

22) 교정지가 OK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장 한 사람의 교열을 거쳐야 했는데, 이것은 사전의 통일성을 갖춘다는 점에서는 장점이었지만, 사전 1책의 교정 기간을 ‘한 사람이 사전 1책을 교열하는 시간’과 동일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단점일 수밖에 없었다. 『『漢韓大辭典』 編纂事業』, 『단국대학교 50년사(상)』, 단국대학교출판부, 1997, 608~609쪽 참조.

23) 『東洋學研究所 略史』, 『東洋學』 20,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90, 490~491쪽 참조.

- 李江魯, “語彙의 고증과정에 대하여 - 尙方定例의 進上衣類를 對象으로 -”(1983.5.23. 제71회)
- 李江魯, “同形語彙의 處理要領”(1984.9.14. 제76회)
- 洪順錫, “漢字語 注釋上の 關聯語 處理에 대하여”(1984.11.16. 제77회)
- 金東吉, “漢韓大辭典에서의 字典의 分野에 대한 小考(1)”(1984.12.11. 제78회)
- 金東吉, “漢韓大辭典에서의 字典의 分野에 대한 小考(2)”(1985.2.19. 제80회)
- 金東吉, “漢韓大辭典에서의 字典의 分野에 대한 小考(3)”(1985.4.12. 제82회)
- 金侖禹, “韓國 古地名에 對한 小考”(1985.4.18. 제83회)
- 金東吉, “辭典注釋에 대한 諸問題”(1985.5.17. 제84회)
- 徐智源, “漢韓大辭典의 컴퓨터編纂組版에 대하여”(1986.5.9. 제86회)
- 金東吉, “漢韓大辭典 編纂指針(試案)에 關한 研究(1)”(1986.6.17. 제87회)
- 金東吉, “漢韓大辭典 編纂指針(試案)에 關한 研究(2)”(1986.7.8. 제88회)
- 徐智源, “漢韓大辭典의 編纂과 컴퓨터인쇄”(1986.9.9. 제89회)
- 徐智源, “辭典編纂과 컴퓨터인쇄(2)”(1987.3.19. 제90회)
- 徐智源, “辭典出版에 있어 컴퓨터 이용의 國內外 動向”(1988.5.20. 제96회)
- 李江魯, “辭典의 處理에서 본 中國音과 韓國音”(1990.3.26. 제107회)

(2) 『東洋學簡報』의 발간

제4대 소장 金東旭 박사의 발의로 창간된 『東洋學簡報』는 동양학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東洋學』의 자매지로서 한동안 학계와의 대화 창구 역할을 하였다.²⁴⁾ 특히 『동양학간보』는 『한한대사전』 편찬 사업을 널리 알려 여론을 환기하고, 정부를 비롯한 외부기관과 관련 분야 여러 학자들의 협조와 조언을 구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동양학간보』 표지 이면에 적혀 있는 “우리는 17년의 세월과 70억의 재원을 들여 ‘漢韓大辭典’의 편찬을 진행 중에 있다. 이는 민족문화와 유산의 계승을 위한 우리 민족의 민족적 대사업이라 자부하고 있다. 이 사업을 편찬하고 있는 실무자도 그런 긍지 속에서 일하고 있다. 뜻있는 인사께서는 이 사업의 완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라는 문구는 『한한대사전』 편찬 사업에 임하는 연구소 및 편찬원들의 사명감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양학간보』는 『한한대사전』 편찬과 관련한 소식을 관련 학자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되어 주었다. 편찬실에서는 『한한대사전』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문제들을 『동양학간보』에 숨김없이 털어놓고 대방의 지혜를 모으려는 시도를 아끼지 않았다. 이는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벅찬 범국가적이고 범민족적인 대사업을, 비록 편찬 사업에 직접적으로는 참여하고 있지 않으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이들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24) 1984년 12월부터 매년 2차례씩 간행되어 온 『東洋學簡報』는 1990년 4월 10호를 발간한 뒤 잠시 중단되었다. 그 뒤 2001년 속간되었던 『東洋學簡報』는 2004년 12월 15호를 발간한 뒤 더 이상 발간되지 않고 있다.

- ① 다음의 것들은 우리식 한자어입니다. 이런 한자어를 동양학연구소에서는 약 10만 단어를 수집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호의 단어 수는 360단어입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알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1/4이었습니 다. 전공에 따라 각자의 아는 단어의 수는 다를 것입니다. 괄호 안에 기입한 것은 본인이 試案으로 상식적인 면에서 아는 대로 메모한 것입니다. 한 단어의 띄어쓰기에 무리가 있는 것도 있었습 니다. 여러분께서도 각자 자기의 우리식 한자어의 실력을 테스트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欄은 동양학연구소와 뜻있는 여러 학자와의 협동의 광장으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협력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분에게는 사례를 드리려고 합니다.

借字語에 있어서는 그 읽는 법을, 變音으로 읽는 낱말은 그 변음을 정확히 적어 주시고 語義가 여럿으로 갈라진 낱말은 그 뜻갈래를 아시는대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旭〉²⁵⁾

- ② 편찬실에서는 1978년부터 우리 文獻에서, 우리 先人들이 만들어 쓴 韓國漢字語를 採錄하고, 그 채록 어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한자어사전의 원고를 집필해 왔습니다.

그 동안 약 15萬 單語를 다루는 과정에서, 그 語義를 精緻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있는가 하 면, 句讀를 어디서 띄어야 文脈을 바로보는 것인가에 대한 疑問이 있는 것도 있기에, 이번에 이 簡報 特輯을 통해 이를 일반에게 公開함으로써, 뜻있는 구안자와 각 분야별 석학들의 고견을 얻 어 함께 토구할 수 있는 협동의 광장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²⁶⁾

- ③ 우리 編纂室에서는 7年餘의 刻苦 끝에 韓國漢字 및 韓國漢字語의 第一次의 採錄作業을 끝마치 고, 昨年부터 本格的인 注釋作業에 착수하였다.

70億원 이상의 財源確保가 一個 私學財團으로서 專擔하기가 힘겨운데다 活版에 의한 組版의 어려움을 컴퓨터에 의해 克復해 보려는 意慾 또한 돈을 가지고서도 解決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에서 막상 注釋에 손을 대고 보니 처음 豫見했던 이상의 難題들이 山積해 있어 江湖 諸賢의 參與와 質正을 받고자 本 編纂室에서 企劃하고 있는 試案本을 公開하기로 하였다. …(중략)… 이 試案本을 公開함에 있어 讀者 여러분의 意見을 收斂하려 한다. 이를 보시고 添加하거나 고치고자 하시는 意見이 있으시면 아래에 通知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아울러 投稿 意見은 東洋學簡報에 신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協力을 바랍니다.

東洋學研究所長 金東旭 白²⁷⁾

①과 ②는 한국한자어의 풀이 과정에서 부딪힌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江湖諸賢에게 협조를 구한 것이

25) 漢韓大辭典 編纂室, 「우리식 한자어 풀이(Ⅰ)」, 『東洋學簡報』 1,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84, 8쪽.

26) 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編纂室長, 「韓國漢字語辭典에서의 難解 語彙(Ⅰ)」, 『東洋學簡報』 10,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90, 2쪽.

27) 編纂室, 「漢韓大辭典 試案本」, 『東洋學簡報』 3,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85, 15쪽.

고, ③은 어휘 주석만이 아니라 『한국한자어사전』 자체의 試案을 공개함으로써 사전 발간에 앞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혹 저지를 지도 모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구한 것이다. 『동양학간보』를 이용하여 미래의 사전 이용자와 소통하고자 하였던 이와 같은 편찬실의 의도는 강호제현의 열화와 같은 화답으로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특히 『『漢韓大辭典』 試案本』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제시는 『한한대사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橫書’와 ‘縱書’의 문제, 약물 표시 방법, 한자음의 표기 방법, 조선왕조실록의 권수와 연월일을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할 것, 『二十五史』의 원전 표기 시 권수를 밝혀 줄 것, 누락된 어휘 보충을 위한 다양한 자료의 제공, 주석의 문제, 사전의 체제, 나아가 판형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두루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줌으로써, 편찬실로서는 이용자들에게 환영받는 사전을 만들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다.²⁸⁾

(3) 동양학연구소 도서관의 운영

본 도서관은 동양학연구소의 설립목적인, 한국문화를 기축으로 한 동양문화 전반의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1970년 9월 연구소 발족과 함께 부설 운영되어 왔는데, 2001년 8월 여러 개의 각 실로 나뉘어 있던 편찬실을 一石紀念館 3층의 도서관 자리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소장 도서를 중앙도서관으로 옮겨 관리하고 있다. 당초 사찰 불교전적 300여 책과 張忠植 전 총장이 수차에 걸쳐 대만에 가서 구입한 『四部備要』(611책) 등 중국 전적 1,000여 책을 기반으로, 동양학 연구에 필요한 기본 사전류, 문학, 사학, 철학, 어학류, 문집류, 불전류 자료를 국내외에서 널리 수집하여 35,000여 책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었다. 『文淵閣四庫全書』 전질이 비치되어 있었으며, 동양학 관계 전문도서관으로서 專門司書를 두고, 그 특성에 맞는 도서분류법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30여개 국에 달하는 외국의 학술기관과 자료를 교환하였으며, 1999년에는 『東洋學研究所 藏書目錄』을 간행한 바도 있다.²⁹⁾ 특히 동양학연구소 도서관은 사전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점에서 『한한대사전』 편찬에 기여한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4) 편찬원의 해외 시찰

동양학연구소 제4대 소장이었던 金東旭 박사는 편찬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의 일환으로 해외 시찰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85년 8월에는 일본과 대만 등의 사전 사업 현황과 그 기술적 측면을 시찰하기 위하여 편찬실장 李江魯와 편찬원 金東吉을 파견하여 약 2주간 연수 경험을 쌓게 하였다. 또한 1986년 7월에는 편찬원 徐智源과 李賢植으로 하여금 열흘 간 일본을 다녀오도록 하였다.³⁰⁾

한편 ISO(국제표준기구) 산하 CJK-JRG(한중일 통합한자연구그룹)나 IRG 위원으로 활동하여 온 徐智源의

28) 宋芳松, 「漢韓大辭典 試案本에 대한 意見」, 『東洋學簡報』 4,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86.; 「特輯 漢韓大辭典 試案本에 대한 各界의 意見」, 『東洋學簡報』 5,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86.; 宋芳松, 「韓國漢字語辭典 試案本에 대한 意見」, 『東洋學簡報』 8,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88.

29) 黃眞江, 「東洋學研究所의 回顧와 展望」, 『東洋學』 30,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0, x vi쪽 참조.

30) 『단국대학교 40년사』, 단국대학교출판부, 1987, 624쪽.

경우에는 해당 그룹이나 위원회의 회의가 있을 때 한국대표로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사전 편찬과 관련한 국제적 이슈와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였다. 그에 따라 徐智源은 1992년 하와이에서 열린 CJK-JRG 제5차 회의(11.30~12.6)에 다녀올 수 있었으며, 1994년 북경에서 열린 IRG 제3차 회의(8.29~9.2)에도 한국대표단원으로 참가할 수 있었다.³¹⁾

(5) 전산조판 시스템의 도입과 한자 폰트 개발

일찍이 李江魯 편찬실장은 컴퓨터 조판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을 한 바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활판인쇄가 주류를 이루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한대사전』에서 다루는 한자는 줄잡아 6만여 자였다. 시중 인쇄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한자의 자모는 약 2만여 자에 불과하였다. 자모에 없는 僻字는 쪽자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쪽자로 해결해야 할 글자의 수가 전체 자모의 2배가 넘는 상황이었으니, 자모의 추가 개발 없이는 불가능한 노릇이었다. 그러나 4만여 자의 자모 개발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야 했다.

‘사식’이라고 하는 사진식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사식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던 자모판 외에 부족분을 일본으로부터 구입하거나 주문 제작할 수 있었으나, 조판기술적으로는 문제가 많았다. 한글과 한자를 혼용해 쓰면 자간이 일정치 않아 한 행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원고를 집필할 때 괄호와 각종 부호들을 일일이 계산해서 집필해야 했고, 그래도 수정할 부분이 생기면 臺紙作業을 하는 숙련공들이 일일이 칼질을 해야 했다.

당시 시중에는 일본의 ‘모리사와’ 컴퓨터 조판기와 ‘샤켄(寫研)’의 컴퓨터 조판기가 나와 있었는데, 비록 高價이기는 하였으나 매우 파격적인 조판방식이었고 경제성도 뛰어났다. 그러나 한자의 수량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것은 커다란 결점이었다. 한자의 수량을 늘리는 데에도 한도가 있었고 일본에서 폰트를 개발하여 한국으로 가져오는 비용도 상당 액수가 소요될 것으로 보였다. 결국 일본식 컴퓨터 조판은 어려운 것이었다.

전산 조판은 분명 기존의 활판이나 사진식자보다 편리하며 경제적인 방식이었다. 연구소에서는 1987년 6월 26일 제60차 평의원회의에서 ‘『漢韓大辭典』 조판작업과 컴퓨터 도입에 관한 일’을 정식으로 다루어 필요성을 확인한 다음, 학교 당국에 도입을 건의하였다. 또한 1989년 9월 2일 편찬회의를 개최하여 컴퓨터 도입 문제를 논의하였고, 月例研究討議會에서도 이 문제를 거듭 다루어 여론을 환기시켰다. 학교 당국에서는 연구소의 건의를 받아들여 점검한 끝에 서울시스템의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다. 마침내 1990년 10월 서울시스템으로부터 입력기 3대와 출력기 1대를 임대하여 일석기념관 3층 도서관에 설치하고, 같은 달 22일부터 『한국한자어사전』의 첫머리 원고를 조판하였다. 이를 위해 편찬원 徐智源이 편찬실에서 3층 도서관로 자리를 옮겼고, 손민희 등 입력 오퍼레이터 3명은 서울시스템 직원 자격으로 근무하였다. 이듬해인 1991년 4월, 입출력기 도입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었고, 6월에는 입력기 3대를 추가로 도입함과 아울러 한자 폰트 1만자에 대한 개발도 체결되었다. 이후 일석기념관 1층의 102호에 입출력기를 이전 설치하였고, 얼마 뒤에는 106호

31) 『彙報』, 『東洋學』 23,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93, 238쪽; 『彙報』, 『東洋學』 24,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94, 296쪽 참조. 현재 동양학연구원의 연구원 鄭亨道가 한국한자특별전문위원회(KIRG)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 확보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1992년 1월, 1만자의 한자 폰트를 납품받아 사용하면서부터 교정의 진척도를 한층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조판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한국한자어사전』 1권의 출력은 (주)서울시스템에 가서 해야 했다. 한자도 많이 부족하였다. 그러다가 1993년 1월, 일석기념관 106호에 필름인화지 출력기와 현상기 1세트를 설치하고, 교정용 출력기도 1대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연구소의 컴퓨터실은 조판 입력에서 최종 작업까지 공정 전체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1993년 말 교육부의 폰트 개발 지원금(매년 6천만원씩 5년간 지원)이 확정되면서 폰트에 대한 보완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 1993년 12월 27일 학교 당국과 (주)서울시스템 사이에 한자 폰트 45,000자에 대한 개발 계약이 맺어짐으로써, 폰트 소유권에 대한 논란은 남아있으나 연구소에서는 한글 고체와 중국 간체자를 포함하여 모두 6만여 자의 한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³²⁾ 『한한대사전』은 이렇게 개발된 한자 폰트를 이용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Ⅲ. 앞으로의 계획

학교 당국에서는 『한한대사전』의 완간 직후인 2008년 12월 「한한대사전편찬실」의 해체를 통보하여 왔다. 목적사업이 완료되면 목적사업을 위해 구성되었던 기구는 해체되는 것이 당연하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편찬팀이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팀이 그러했고, 고려대학교의 『한국어대사전』 편찬팀이 그러했다.³³⁾ 「한한대사전편찬실」의 해체 통보는 그런 점에서 당연한 것이었으나, 동양학연구소 「한한대사전편찬실」은 그 후속 사업을 위해 다시 조직되어 가동 중에 있다. 그러나 「한한대사전편찬실」에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한국한자어사전』과 『한한대사전』의 오류를 바로잡고 수정 보완하는 일이 될 것이다. 다행히 후속 사업이 이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후속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정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30여 년에 걸친 대장정 끝에 『한국한자어사전』 4책과 『한한대사전』 16책을 완간한 「한한대사전편찬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간략히 소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한한대사전』의 웹 서비스를 통한 사회 기여

동양학연구소 「한한대사전편찬실」에서는 『韓國漢字語辭典』과 『漢韓大辭典』을 통합·수정·보완하고 디지털화하여 웹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후속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본래

32) 『단국대학교 50년사(상)』, 단국대학교출판부, 1997, 600~605쪽 참조. 한편 동양학연구원에서는 2012년 6월 22일 (주)서울시스템과 웹 폰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한한대사전』 간행을 위해 개발한 한자 폰트 '서울시스템 단국대체'의 유무선 온라인 사용권 및 배포권을 구득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많은 공을 들여 개발한 『한한대사전』의 아름다운 한자 폰트를 온라인 상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33) 홍윤표, 앞의 논문, 1쪽 참조.

2009년 1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총 4년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안이 마련되었던 것으로, 학교 당국의 승인을 거쳐 편찬원 朴燦圭, 鄭東和, 丁泰允, 尹賢姬, 鄭都尙, 金芝英 등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³⁴⁾ 편찬실에서는 이를 위해 2009년 12월 (주)한테크미디어와 계약을 맺고 웹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변환 및 통합 DB 구축과 통합편집기 개발을 추진하여 2년여에 걸친 작업 끝에 2012년 2월 20일 통합편집기 개발을 완료하고, 테스트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과정에 鄭錫龍이 편찬실로 복귀하고, 黃媚淨이 계약직 직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편찬실은 활력을 띠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6월에는 2011년도 한국학진흥사업 한국학 기초사전편찬 분야에 ‘통합디지털 한한대사전’ 과제(2010.6.25~2013.6.24)가 선정되어 3년간 연구비를 지원 받게 되었다. 그에 따라 기존의 편찬원들 외에 연구원 金正敏·鄭亨道와 연구보조원 金寅鴻도 이 사업에 동참하여 힘을 보태고 있다.

이 사업은 우선 『한국한자어사전』과 『한한대사전』의 데이터를 통합 증보하고, 둘째로 웹 폰트를 정비 개발하여 웹 기반 환경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한 뒤, 셋째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한자어사전』과 『한한대사전』의 통합 DB가 구축되고 웹 서비스가 가능해지면, 부수, 총획, 자음 등의 색인 검사는 물론, 풀 텍스트, 분류별 검색, 용어별 검색 등 종합적인 검색 시스템을 구현하고,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공개하여 기본 서비스를 다른 학술 사이트에서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키피디아’ 형태의 양방향 커뮤니티 사전으로 발전시켜, 신속하면서도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이 가능한 미래지향적 사전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³⁵⁾

2. 학습용 한자사전 및 전문 갈래 사전의 편찬

정확하면서도 풍부한 한자와 어휘를 담은 학습용 한자사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에 부응하는 한자사전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동양학연구원 편찬실에서는 『한국한자어사전』과 『한한대사전』을 기반으로 이와 같은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학습용 한자사전을 편찬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한자어사전』과 『한한대사전』에는 정치 및 행정제도, 지리, 풍속, 과학, 역사, 문학, 종교 등 여러 분야의 전문 용어들이 두루 망라되어 있다. 동양학연구원 편찬실의 편찬원들은 한문 해독 능력과 함께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DB에서 자유자재로 뽑아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통합 DB가 구축되면 분야별 전문 갈래 사전을 다양하게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밀하고도 독립적으로 간행될 분야별 한자사전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연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4) 이 가운데 편찬원 鄭東和는 2010년 12월 한국고전번역원으로 적을 옮겼다.

35) 이러한 목표 아래 진행되고 있는 연구과제는 연구기간인 2012년 6월까지 『한국한자어사전』 1~3권과 『한한대사전』 1~9권까지의 통합 DB 구축 및 웹 폰트 정비와 개발을 완료할 것이다. 그리고 2단계 3개년(2013.6~2016.5) 간의 연구과제를 추가로 신청하여 나머지 『한국한자어사전』 4권과 『한한대사전』 10~15권의 통합 DB 구축 및 웹 폰트 정비와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명실 공히 세계 최고의 『한한대사전』을 웹상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통합 DB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한국한자어사전』과 『한한대사전』의 내용을 통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에 간행된 『한국한자어사전』과 『한한대사전』의 오류를 바로잡고 여기에 누락된 한자와 한자어를 보완하는 작업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통합디지털 한한대사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고도화 사업도 차후 사업으로 기획하고 있다.

3. 사전학의 세계적 메카를 향한 학술 연구

동양학연구원은 30여 년에 걸친 『한한대사전』 편찬 경험을 바탕으로 이 분야의 전문 인력을 길러냈을 뿐 아니라 적지 않은 학문적 성과도 축적하여 왔다. 특히 보다 나은 『한한대사전』을 간행하기 위해 주고받았던 수많은 고민들과 의견들은 사전학을 개척해 나가는 데 그 어떤 것보다도 큰 힘이 될 것이며, 완간 이후 현재 까지 3차례에 걸쳐 개최한 사전학 학술회의 역시 이 분야의 연구자들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³⁶⁾

뿐만 아니라 동양학연구원에서는 산하의 연구실과 편찬실, 번역실이 공히 협동과정을 개설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편찬실 역시 그동안의 사전 편찬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학 분야의 여러 측면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교육하는 사전학 협동과정의 개설 운영을 고려하고 있다.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을 바란다. 사전 편찬의 경험과 학술적인 연구, 교육이 함께 어우러질 때 사전학 분야의 세계적인 메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동양학연구원 편찬실에서는 이 세 분야에 대한 행보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4. 유관 기관과의 협력 사업

동양학연구원 편찬실은 350억이라는 막대한 재원과 3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루어진 『한한대사전』의 편찬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경험은 그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것임에 틀림없다. 그 속에서 길어 올린 다양한 정보와 기술, 가치를 유관 기관과 기꺼이 공유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함께 앞서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이다. 이는 『한한대사전』 편찬에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었던 江湖諸賢에 보답하는 길이 되기도 할 것이다. 예컨대 동양학연구원에서는 2012년 4월 12일 (주)한글과컴퓨터와 ‘한컴오피스’ 한자 정비를 위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함초롬체 폰트 개발 및 ‘한컴오피스’ 한자사전 정비에 『한한대사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³⁷⁾ 동양학연구원에서는 이밖에도 국사편찬위원회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울대학교 규장각,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등 국학 관련 연구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연구자들에게 이용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자 폰트에 대한 공동 연구와 논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동양학연구원 편찬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있겠으나,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우리가 펴낸 『한한대사전』의 권위를 더욱 끌어올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한대사전』에 대한 각계각층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오류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누락되었거나 미처 검토하지 못한 자료들을

36) 동양학연구원에서는 『한한대사전 편찬 백서』(가칭)의 발간을 준비하고 있으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사전학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묶어 ‘사전학 총서’로 간행할 예정이다.

37) 「한컴·단국대 한컴오피스 한자 검색 정비 협약」, 『파이낸셜뉴스』 2012년 4월 13일자.

찾아 보완하고, 새롭게 등장한 연구 성과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명실 공히 세계 최고의 한자사전을 만드는 데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과 『한한대사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韓國漢字語辭典』 1~4,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92~1996.
-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1~16,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99~2008.
- 『단국대학교 30년사』, 단국대학교출판부, 1977.
- 『단국대학교 40년사』, 단국대학교출판부, 1987.
- 『단국대학교 50년사(상)』, 단국대학교출판부, 1997.
- 장충식, 『中齋張忠植回顧錄 시대를 넘어 미래를 열다』, NOSVOS, 2011.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백서』, (주)계문사, 2000.
- 겨레말큰사전 남측편찬위원회,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 백서』, 2005.
- 도원영·박주원, 『〈고려대 한국어대사전〉과 사전학』, 지식과교양, 2011.
- 「[特輯] 漢韓大辭典 試案本에 대한 各界의 意見」, 『東洋學簡報』 5,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86.
- 「東洋學研究所 略史」, 『東洋學』 20,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90.
- 「漢韓大辭典編纂室 規程」, 『단국대학교 40년사』, 단국대학교출판부, 1987.
- 金東旭 外, 「漢韓大辭典 編纂 中間報告」, 『東洋學簡報』 6,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87.
-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일러두기」, 『韓國漢字語辭典』 1,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92.
-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일러두기」, 『漢韓大辭典』 1,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99.
- 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編纂室長, 「韓國漢字語辭典에서의 難解 語彙(Ⅰ)」, 『東洋學簡報』 10,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90.
- 宋芳松, 「韓國漢字語辭典 試案本에 대한 意見」, 『東洋學簡報』 8,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88.
- 宋芳松, 「漢韓大辭典 試案本에 대한 意見」, 『東洋學簡報』 4,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86.
- 張忠植, 「『漢韓大辭典』 완간을 보는 소회」, 『漢韓大辭典 刊行記』,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8.
- 鄭載喆, 「『漢韓大辭典』의 편찬 방향과 사전사적 의미」, 『東洋學』 46,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9.
- 曹命根, 「校正有感」, 『東洋學簡報』 11,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1.
- 車柱環, 「韓國漢字語辭典의 編纂과 校閱」, 『東洋學簡報』 4,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86.
- 編纂室, 「漢韓大辭典 試案本」, 『東洋學簡報』 3,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85.
- 漢韓大辭典編纂室, 「우리식 한자어 풀이(Ⅰ)」, 『東洋學簡報』 1,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84.

漢韓大辭典編纂室, 「漢韓大辭典의 집필 및 편찬방향」, 『東洋學簡報』 8,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88.

홍운표, 「『漢韓大辭典』 補完 方法의 提案 - 『韓國漢字語辭典』을 포함하여 -」, 『동아시아 고유한자의 국제표준화와 사전편찬』(제3회 동양학연구원 사전학 학술회의 프로시딩),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2.

황선엽, 「이두문 자료 어휘의 사전 편찬에 대하여 - 신라 · 고려를 중심으로 -」, 『동아시아 고유한자의 국제표준화와 사전편찬』,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2.

黃溟江, 「東洋學研究所 14년을 회고하며」, 『東洋學簡報』 1,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84.

黃溟江, 「東洋學研究所의 回顧와 展望」, 『東洋學』 30,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0.

「〈교수신문〉 특별기획 ‘대학의 유산, 한국의 미래다’ 시상식」, 『교수신문』 2012년 5월 4일자 5면.

「한컴 · 단국대 한컴오피스 한자 검색 정비 협약」, 『파이낸셜뉴스』 2012년 4월 13일자 30면.

* 이 논문은 2012년 6월 26일에 투고되어,
2012년 7월 27일에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2년 8월 1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2년 8월 17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The compilation process of the *Han-Han-Dae-Sajeon* and the plan of the compilation office of the *Han-Han-Dae-Sajeon*

Yoon, Seungjoon*

I wrote this paper to achieve twin objectives. At first, I want to share the trials and errors, know-hows, information concerned with a dictionary compilation based on the compilation process of *Han-Han-Dae-Sajeon*. Also I purposed to prepare *the white paper of Han-Han-Dae-Sajeon compilation*. According to the President Chang Chungsik's require,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established the compilation office of the *Han-Han-Dae-Sajeon* and pushed ahead the great project in 1977.

Since 1977, the plan for the compilation and publishing the *Han-Han-Dae-Sajeon* was changed twice, and the special commission on *Han-Han-Dae-Sajeon* compilation was organized in 2004. At last the *Han-Han-Dae-Sajeon* (16 volumes) was completed 28 October 2008. During the 31 years,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held several meetings for reading research papers, published a news letter *Bulletin of Oriental Studies* semiannually, as well as running the reference room. And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introduced the computerized typesetting system and developed the Chinese character fonts.

Now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is undertaking the integrating and digitalizing project of the *Han-Han-Dae-Sajeon* (16 volumes) and *Dictionary of Korean Chinese Characters* (4 volumes). Completing this project,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will carry out the projects as following ; on-line service of *Han-Han-Dae-Sajeon*, compilation of the essence dictionary for student or compilation of the disciplinary expert dictionaries, research for the lexicography, cooperation with the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s Classics, Academy of Korean Studies etc.

[Key Words] *Han-Han-Dae-Sajeon*, *Dictionary of Korean Chinese Characters*,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the compilation office of the *Han-Han-Dae-Sajeon*, the compilation process,

*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plan, regulation, organization and reorganization, guidelines for compilation, compiler, word selecting, annotation, a news letter *Bulletin of Oriental Studies*, a meeting for reading research papers, reference room, the computerized typesetting system, integration, digitalizing